

6/12/16

설교 제목: 진정한 신앙 양심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갈라디아서 1:1-10

- (갈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절관주** 행 9:6
- (갈 1: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절관주** 고전 16:1
- (갈 1: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갈 1: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 (갈 1: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갈 1: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 (갈 1: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절관주** 고후 11:4
- (갈 1:8)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절관주** 고전 16:22
- (갈 1: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 (갈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 권 중 바울이 저자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 권을 썼고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정립해 놓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은 지금의 뉴욕 출신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로 유대인 중에서도 왕족이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로 꼽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 사회적인 지위, 재산 등등 모든 면에서 바울은 최상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AD 30년)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며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가 AD35년, 예수님이 승천하신지 5년이 지나서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이 날도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내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찾아 오신 것입니다.

(행 9: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행 9: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행 9: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땅에 엎어졌고 동시에 눈이 안보이게 되어 동행인의 손에 이끌리어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졌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3 년 후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회심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 가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고 기독교인들도 바울이 회심했다는데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고향인 다소로 가서 머무는데 그 10 년 동안의 행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전도 붐이 일어나고 그 일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협력하여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크리스찬이란 명칭은 이때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여 붙여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1 차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AD 46 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의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카프러스)과 남 갈라디아 지방을 약 2 년에 걸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를 만나 합류시켜 같이 복음을 전했으나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도착한 후 요한 마가는 나머지 일정을 포기하고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핍박하여 이를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앓은 병이를 고치는 기적 등을 행하며 많은 결실을 거두었고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한 형제들을 격려하고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후 앓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 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활발해지자 일부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교리 다툼으로 시끄럽게 되었고 이방인 교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세계화 하는데 발판을 마련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항이었는데 A 49 년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원은 할례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에 대한 예루 살렘 총회의 결정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고 AD 49 년 구브로 섬과 소 아시아 남부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2 차 전도 여행입니다.

1 차 전도 여행 중 버가에서 일행으로부터 이탈하여 도중에 돌아가 버린 요한 마가를 2 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였고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 성령의 이끌림으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압볼리로 가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서 나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쫓겨나고 베뢰아로 가서 전도한 후 아테네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의 아레오바고 한 가운데 서서 설교를 했고 이후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일년 육개월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시리아로 갔고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올라가 문안한 후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문 후 3 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육로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에베소로 가서 두란노 학당을 세우고 2 년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로 인해 은으로 된 아데미 여신 상을 거래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아데미 성전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에 폭동까지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돌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7 일 동안 머물렀고 다시 배를 타고 밀레도에 도착하여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 작별을 하고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됩니다.

설에 의하면 바울은 네로에게 처형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에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던 중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서 바울이 전해 준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격분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개종자들은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일부 유대 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 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당위성을 말합니다.

(갈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바울이 자신이 쓴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이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들 내에 유대 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던 아킬레스 건이였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 사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살아 생전 예수님을 따라 다니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을 사도로 지칭합니다.

그러자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트집잡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교인들에게 선동했고 교인들에게 그 말이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들로 부터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박은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변화 받았고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주를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편지를 쓰게된 이유를 언급합니다.

(갈 1: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침투한 율법주의 이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유대 주의 거짓 교사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며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서도 이단에 빠져 든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바울이 말했지만 오늘날도 주께서 피흘려 사신 많은 교회 내에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천주교, 자유주의 신학, 신천지, 구원파 등 이단들이 교회 내에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단호히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갈 1: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다 속죄되어 구원받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왜곡시키고 결국은 복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바울은 연이어 말합니다.

(갈 1:8)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복음은 사도들이 이미 전한 복음을 하나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참 복음은 이미 확정되어서 바울도 변경시킬 수 없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어진 복음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을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멸망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짓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내에 유대 주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구원은 규례나 율법, 종교 의식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양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 위함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쉽습니까?

규례, 율법, 종교 의식을 다 지켜 구원 받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는 것이 쉽습니까?

규례, 율법, 종교 의식을 다 지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죄로 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주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쉬운 길을 제시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갈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율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시키려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죄로 부터의 자유, 죄로 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유대교인 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계기로 율법의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죄로부터의 자유를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바울, 예수와 그를 믿는 자들을 증오하던 바울을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시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구원받는데 율법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구원받는데 바울 자신이 행한 일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을 구원시킨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였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 양심을 팔아 먹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진정한 신앙의 양심을 간직하시며 사시길 부탁드립니다.